

인간의 미래와 평화의 가능성

작가 오승휘

우리 인간은 인류가 존속되기를 오시리스신(神)앞에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 러셀(Bertrand Russell :1872 ~1970)은 진솔하게 말하였다. 현대인의 과오에 대하여 고대 이집트의 지승 신 오시리스신(Osiris)께 고백하는 것이다.

<공정하신 재판관님, 인류에 대한 고발은 사실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이 현대에 와서도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전개시킨 가능성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실 것은 우리 인간들은 최근에 고대적 무지(無知)와 여러 시대를 걸쳐서 싸운 생존경쟁에서 비로소 벗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지난 12세기 동안에 일어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획득한 새로운 힘에 도취한 나머지 우리들의 대부분은 다른 인간들에 대한 힘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깨비에게 홀려서 도깨비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불은 어찌면 조금씩 빠지는 수렁속으로 우리들을 끌어 들이려고 유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 인간의 모든 기력을 빨아들여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또한 성운(星雲)이나 원자(原子)에 대해서, 즉 거대(巨大)한 일이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에 이른 것은 우리들 이전의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 그 이상으로 넘어선 것뿐입니다.

그러면 신(神)께서는 이렇게 반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란 것은 그것을 선용(善用)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손에 쥐여지지 않는 한, 선(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도 역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통제하는 힘은 모자라지만,

여러 성인(聖人)이나 예언자들이 전쟁의 어려움과 가혹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러셀은 평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할 것이다. 영국의 수학자·철학자·저술가로 박학의 러셀은 1950년에 노벨(Nobel)문학상을 받았다.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초월적인 영광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힘도 인간의 내부에 잠재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인이나 작곡가, 화가와 같은 사람들이 이룩해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슴 속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비전(vision)을 웅대하고도 빛나는 작품의 형태로써 세상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의 세계가 우리들 모든 인간의 것으로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또한 서정시(抒情詩)와 같은 아름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어느 정도는 예컨대 남성과 여성과의 연애의 형태로서 수많은 인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가능성이 연애와 같이 좁은 영역

에 한정되어 있어야할만한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합창교향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가능성은 전 세계를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 등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 범위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미래의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일들을 필히 성취할 것입니다. 오시리스신(神)이시어!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서 신(神)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형(刑)의 집행연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이 옛날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위에서 탈피하여 빛과 사랑과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 살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영국의 러셀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꿈꾸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일들,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말한 ‘ 훌륭한 신세계(a brave new world)’ (The Tempest, V. i, 183)는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라는 종류의 동물이 앞으로도 존속할만한 가치도 있고, 그러한 가치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에서 꼭 실현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